

미륵의 너른 품 속 각종 종교 발생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① 모악산 금산사



용화동 일대 전경

산 이름은 모악산이요, 절 이름은 금산사이지만, 이름의 연원을 따져보면 모두 산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 산의 옛 이름은 '엄피', '큰피'였다. '어머니산'이라는 이름이나, '큰산'이라는 이름이나 조선 고대의 산악숭배 사상이 반영된 이름이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면서 '엄피'는 '모악(母岳)'이 되었고, '큰피'는 '큰>큰>금'으로 음역하여 '금산'이 되었다고 한다.

큰 산인데다가 어머니 산이라서 모악산에서는 금만평야를 적시는 대부분의 물이 흘러나온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는 '벼의 골' 즉 '벼골'인데,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발상지인 모악산을 감싸고 있는 너른 들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모악산은 이른바 평지돌출형 산인데, 그 산의 품이 넓고 깊어 모악산에 들면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스해진다. 이곳이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발상지이다.

미륵하생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용화동을 비롯한 금산면 일대에서는 여러 신종교가 탄생한다. 증산교를 시작으로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종파가 이 일대를 근거지로 한다. 민중들은 사회적 소외가 심해지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마련이다. 이런 민중들의 의식은 때로는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먼저 절로 향한다. 미륵신앙의 모태인 미륵부처를 배알해야 하지 않겠는가. 겨울 차가운 물소리가 포랑포랑 귀를 씻는다. 주차장을 지나자 신원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미륵상이 있다. 조그마한 보호각 안에는 수십 개의 양초가 놓여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보호각 옆 나무 앞에도 많은 양



증산교 건물

초가 놓여있다. 토엿의 흔적이다. 아니 나무마저 부쳐로 보고 기도할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물소리 들으며 절로 향한다. 날씨가 몹시 춥다. 손이 얼어붙는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분이 절에서 나온다. 미륵님 뵈고 가는 길이나 했더니, 그렇다고 한다. "날마다 오시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아" 하고는 부리나케 내려가 버린다. 이름이고 뭐고 물을 틀어 없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절마당에는 사람 그림자가 드물다. 오가는 몇도 그저 사진 찍기에만 열중이다. 사람이 대상을 보지 않고, 카메라가 대상을 본다. 사람은 자기 눈을 버리고 사각의 틀을 통해 대상을 본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기계가 주인인 셈이다.

미륵전에 들어간다. 미륵부처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 이름이 스쳐 지나간다. 신라의 고승인 진표 스님, 후백제의 진훤(견훤)왕, 조선의 혁명가 정여립, 김계남과 전봉준, 보천교의 차경석과 증산 강일순 등.

계단(坡壇)으로 향한다.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2개 밖에 없다는 계단. 방등계단이

그것이다. 계단은 계을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곳이다. 방등(方等)이라는 말엔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계단 아래에서서 절마당을 바라본다. 사람의 발자국이 몇 개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한 사람이 길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걸어가고 있다. 길 안도 깊고 길 밖에 길이 되는 마당이다.

절집을 나와 용화동으로 향한다. 금산사 사하촌은 좁혀 말하면, 용화동과 계룡, 금산 마을이고, 넓게 말하면 금산면 전체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용화동은 오래 되었고, 계룡은 박정희 대통령 때, 공비 소탕 한다고, 한두 집 흩어진 독가촌을 다 철거해 들어온 집들이여, 스텐트 집들이 다 그때 들어온 집들이여."

용화동에 산 지 50년이 되었다는 이창화옹(76·용화동)은 마을들이 형성된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모악산은 미륵신앙의 발상지 증산도 들어서며 사하촌 변창 지역자 구조 백년된 금산교회 초기 유교적 관습 옛볼수 있어

용화동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변창한 것은 1871년 증산 강일순의 증산도가 들어오고부터라 한다. 증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계룡은 두 마리가 있는데, 수컷은 충청도의 계룡산이요, 모악산 계룡봉은 암탉으로 진계(眞鷄)라 하였다. 증산 강일순의 후천개벽 사상은 기아와 전쟁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 근대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금산저수지 위 구릿골에는 동곡약방이 있는데, 그곳은 강증산이 '천지국'을 했던 장소로 유명하다. 강증산의 천지국은 '축임'을 일삼는 선천시대를 끝내고, 그동안 천대 받았던 여성성이 신이 되는, 세상의 어머니가 신으로 화하는 '살림'을 위한 후천개벽이었던 것이다.

증산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이 생소한 종교단체 건물들이 쉽게 눈에 띈다. 서백일교의 본거지가 있었다는 계곡으로 향한다. 퇴임퇴임 흠집들이 보인다. 산 깊은 곳에 이르자 허술한 건물 한 채가 있다. 서백일이 살았다는 곳이다. 한 스님이 기도처로 쓰고 있다.



금산사 미륵전



마을 입구 미륵상

수많은 종교가 발생한 곳, 용화동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다. 금산교회이다. 지역자로 지은 기와집은 초기 교회 건물이다. 유교적 관습을 깨뜨릴 수 없어서 남자 신자와 여자 신자들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고안된 건물이다. 교회 안쪽에는 백년이 넘은 교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참 종교가 많다. 불교는 물론 증산도에 보천교에 기독교에, 또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종교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마을은 평온하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지만, 타인의 종교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자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용화동 일대. 인간이 이를 수 있는 미래 공동체의 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어머니 품안담다.

금산사= 이태훈(시인·본지 객원기자)

용화동에서 만난 조말선 할머니

"다 미륵님 모시는 한 식구"

"내 일생 미륵님을 믿었어. 그러지. 뒷산 어머니 산 아래 모다 사는 거여. 그런데 사는 기 형편 없어. 포도시 밭만 묵고. 친정은 경상도 하동. 노랑강 한려수도 거기는 내 친정 고고지. 쪼 청학동 살다 와부웠어. 청학동 일심교인이고, 진상교인이고, 다 미륵님 하나라."

마을 사람 몇에게 "금산사 미륵불을 치성으로 모신 분이 있느냐?"고 했더니, 여러 사람의 입에서 해주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다. 평생을 금산사 미륵님 믿고 산다는 할머니(조말선·78·계룡). 해주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둘째 아들로 맹화를 그리는 아주 스님이다.

할머니는 혼자서 살고 있다.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오라고 해도, "서울 사라 했다면, 금산사 밑에 용화동에 와 산다나?"하는 말로 일언지하 거절을 하였다. 미륵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 이사를 해 왔다한다.

"눈에 보이고 거기에 축하고 그러면 도가 아니요. 이 길이 올바라나? 지가 생각해서 가는 거지."

할아버지(홍학기·70) 한 분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종교가 서로 다른 이들이건만, 정다운은 하염없다. 할아버지의 고향도 경상도이다. 그도 미륵님을 모시고 싶어 이곳으로 왔다 하였다.

"다 미륵님 모시는 한 식구지 뭐." 할머니의 말이 모악산을 닮았다.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선 80명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 5. 문 의 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조기유학생모집**
초·중·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 ▲이경성(연세대) ▲한승정(탐국대)
 - ▲이정화(경국대) ▲서연희(한국항공대) ▲박병수(영지대)
 - ▲박영문(영지대) ▲김정우(충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은(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우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고)
 -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 ▲김민환(인화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니(광주여고)
 - ▲김민성(취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훈(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훈(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